

전남도, ‘친환경 연안선박 클러스터 조성’ 탄력

정부 기술개발 공모 3건 선정 사업비 846억 확보…목포 거점 선박기술 트렌드 예견·선제 대응 “미래 친환경선박 생태계 주도”

전라남도가 역점 추진중인 ‘친환경 연안선박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전남도는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25년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공모사업’에서 3건이 선정돼 총 846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5일 밝

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녹색해운항로 구축 탄소중립 선박연료 공급기술 개발(265억 원) △친환경 연료 화재폭발 안정성 평가 및 대응설비 개발(302억 원) △상반회전 추진시스템 기반 중대형 선박 전기추진시스템 개발(279억 원) 등이다.

이번 선정으로 전라남도가 2020년부터 추진해온 ‘친환경 연안선박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전남도는 해양 탄소중립과 미래형 선박 핵심기술을 선도할 연구개발 거점으로 확

싹히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도는 2020년부터 목포 남항 일원에 친환경 연안선박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왔으며, 전기추진 차도선과 이동식 전원공급 시스템 개발,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과 실증,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향상 기술개발, 친환경선박용 전기추진 시스템 시험평가 기술개발 등 다양한 선도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2023년에는 중전시험동과 관제유지보수시험동을 완공했으며, 올해말까지는 친환경연료연구동, 국제협력 및 복지동, 전력시험동 등 육상 연구지원 인프라

를 추가로 완공할 계획이다.

여기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친환경연료추진연구센터’도 목포 남항으로의 이전을 앞두고 있어, 전남도의 연구개발 중심지로서의 기반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전남도가 국제친환경 선박기술 트렌드 변화를 예견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온 노력이 결실을 맺은 사례로 평가받는다. 선정된 3개 사업은 탄소중립 연료공급, 화재안전 대응, 전기추진 시스템 등 친환경선박 전주기 기술개발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국

제해사기구(IMO) 국제표준 선도는 물론, 서남권 조선산업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와 연관 기업·연구기관 유지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김기홍 전라남도 전략산업국장은 “탄소중립과 해양에너지 전환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이번 공모 선정은 전남이 친환경선박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술개발과 인프라 완성에 힘써 전남이 미래 친환경선박 생태계를 주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jinyun.oh@jnilbo.com

광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607억 부과

광주광역시시는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 70만5967건, 1607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동구 140억원, 서구 380억원, 남구 209억원, 북구 387억원, 광산구 491억원이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 대비 1만5983건(2.32%), 부과액은 31억원(2.02%) 각각 증가했다.

광주시는 이번 재산세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개발주택가격 상승(1.58%)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신규 부과대상 증가 △건물 신축 및 가격 기준액 상승 등을 꼽았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상이면 7·9월 연 세액의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전자납부 또는 계좌이체·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부 방법으로는 ‘스마트워क्स’(지방세 신고·납부·조회 시스템)앱이나 ARS(142211)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입계좌 이체로 납부하면 거래은행 업무시간 외에도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정성아 기자

광주시, 제4기 공공건축가 50명 공개 모집

건축·도시·조경 등 분야별 전문가 광주광역시시는 창의적 건축도시 실현과 도시 품격 향상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광주시 제4기 공공건축가’ 5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공공건축가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건축물과 공간환경 개선사업에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 참여하며 일관성을 유지하고 디자인 품질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광주시는 지난 2019년 공공건축가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총 3기의 공공건축가 100명이 민간 전문가로서 활동했다.

이번 제4기 공공건축가는 건축, 도시,

조경 등 분야별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되며, 광주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공공건축사업에 참여해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중 위촉될 예정이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응모 자격은 △건축사 △건축·도시·조경 관련 기술사 △대학교·공인된 연구기관 부교수 이상 재직자 등이다. 신진 건축가와 공인된 건축 관련 수상 실적 보유자는 우대한다.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mingol@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건축경관과(062-613-4184)로 문의하면 된다.

정성아 기자

전남도, 중국 선양 농수산물식품 상설판매장 개장

연간 30만 달러 수출 목표

전라남도는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에 ‘전남 농수산물식품 상설판매장’을 개장했다고 15일 밝혔다.

상설판매장은 선양 한인타운 중심부 한백마트 안에 ‘숍인숍(Shop in Shop)’ 형태로 들어섰다.

전남도는 현지 문화와 소비자 취향에 맞춰 제품 기획, 물류,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판매장에서는 전남의 20개 기업이 만든 50여 종의 농수산물·공품, 건강식품, 간편조리세트 등을 상시 판매한다.

연간 30만 달러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기농과 건강·웰빙 트렌드에 맞춘 프리미엄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선양시는 한류 열풍이 강한 지역으로, 한국 식품 전문 매장이 많이 입점해 있다.

도는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타오바오, 옥타몰 등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을 연계해 판매를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미국 등 13개국에 31개의 해외 상설판매장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수출실적은 1천83만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는 중국을 포함해 카자흐스탄, 라오스 등 4곳에 새로 판매장을 열 예정이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이번 상설판매장 개장은 중국 시장에 전남 농수산물식품의 안정적 공급망을 마련하는 전략적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현지화 지원과 물류 인프라 강화로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돕겠다”고 말했다.

김성수 기자



동구새마을회 닭죽 봉사

임택 광주 동구청장과 김대영 동구새마을회 회장과 회원들이 15일 동구 자비신행회에서 초복을 앞두고 관내 어르신들에게 닭죽 배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봉사는 최정학(주)가나나 대표가 생닭 300수를 후원해 이뤄졌다.

김영배 기자

광주시, 전국 최초 ‘농업법인 조사기법’ 개발

114곳 적발…지방세 106억 추정 국무총리상 수상·특교세 2억 확보

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농업법인의 농지를 악용한 불법 부동산 투기와 탈세 행위를 막기 위한 조사기법을 개발해 106억원의 지방세를 추정하는 등 적극적인 조세 행정을 펼치고 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지역 농업법인 전체 983곳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 114개 농업법인의 불법 부동산 행위 등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해 9월 광주 남구 종합감사에서 농업법인의 불법 사례가 일

부 확인된 것을 계기로 실시됐다. 특정감사는 지방세 과세자료와 농업법인 관리자료를 연계해 농업법인 감사에 활용한 전국 첫 사례로 주목 받았다.

광주시는 지방세 과세자료와 농지직불금 수령정보, 법인 재무제표, 토지대장 등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연계 분석하는 조사기법을 개발해 기존 감사의 한계를 극복했다.

감사 결과, 자경농지를 임대한 법인과 고유목적 외 사업을 진행한 법인 등 114개 위반 법인을 적발했고 이 중 74개 법인에 대해 해산명령 조치를 요구했다.

또 부동산업을 영위하며 탈세를 일삼은

25개 법인에는 96억원의 과징금과 10억여원의 취득세를 추정해 총 106억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했다.

광주시는 이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2024년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임태형 감사위원장은 “이 조사는 농업법인 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 적극행정 사례”라며 “전국 지자체의 유사사례 확산을 통해 불법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성아 기자

강기정 시장, 직무수행평가 특·광역시 1위 차지

한국갤럽 상반기 광역단체장 평가 ‘잘하고 있다’ 긍정률 52% 기록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올해 상반기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전국 특·광역시 1위를 차지했다.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14일 발표한 ‘2025 상반기(1~6월)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 직무수행평가’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은 응답자 절반 이상인 52%가 ‘잘하고 있다’고 답해 특·광역시 자치단체장 중 1위에 올랐다. 전국 시도지사 중에서는 종합 4위를



사됐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 60%로 가장 높았으며 50대 53%, 30대 52%, 60대와 18~29세 50% 등 대부분 연령대에서 긍정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 59%, 남성 44%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긍정응답과 부정응답의 격차로, 숫자가

기록했다.

강 시장은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긍정률 50% 안팎으로 좋은 평가 받아 균형잡힌 지지층이 확보된 것으로 조사됐다.

클수록 긍정 평가를 뜻하는 ‘순지수’도 특·광역시 지자체장 중에 가장 높은 ‘+19’(긍정 52%-부정 33%)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 자체조사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국 만18세 이상 1만7707명(17개 시도별 최대 4772명, 최소 156명)을 대상으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17개 시도별 ±1.4~7.8%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권범 기자